

잇단 해킹사고에… 제2금융권, AI 보안체계 전면 재정비

카드·가상자산 해킹 피해 속출
금융권 전반 보안 위기감 고조
AI 기반 FDS·콜봇 도입 확대
상호금융도 사고예방 체계 구축

카드사에 이어 가상자산거래소, 이커머스까지 보안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권 전반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금융사기 예방 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에 금융사기 AI 기술을 도입하며 금융사기 사전 차단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카드는 SK텔레콤의 AI 보안 플랫폼인 'FAME'를 신한카드 자체 FDS와 연동했다. FDS는 전자금융거래 접속 정보 및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 차단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금융권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까지 해킹사고가 잇따르면서 고객정보 보안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뉴시스

FAME는 통신망에서 탐지된 ▲의심 통화 ▲비정상 인터넷 주소(URL) ▲악성 애플리케이션 접근 정보 ▲카드 거래 데이터 등을 모두 분석하는 SK의 보안 플랫폼이다. 통화, 거래, 결제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의심 징후가 포착되면 결제를 즉시 제한하고, 고객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KB국민카드 역시 FDS에 AI 콜봇 시스템을 정식 도입했다. AI 콜봇은 장기 카드대출 고객과 같이 보이스피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안내해 준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빠른 사후 조치를 위해 분실신고 및 재발급, 사고보상 접수로 자동연결 되는 기능을 추가했다.

금융사기 악용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 탈취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롯데카드에 이어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피해액 386억원 규모의 해킹 사태가 터졌다. 카드사부터 가상자산거래소까지 금융권 전반에서 해킹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보이스피싱 월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1만 2339건으로 전년 동기(1만52건) 대비 22.75% 증가했다.

상호금융권도 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치에 나선다. 수협중앙회는 '해외 IP 차단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거래 안전망을 강화한다.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등 일선 수협 상호금융 비대면 채널에 접속한 IP 주소가 해외일 경우, 이체와 보안 매체 사용 거래가 원천 차단한다.

새마을금고도 약 100억원을 투입해 부당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평가 모델을 만들고, 금융사고 전 이상징후를 금고별로 사전 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고가 잠재적인 금융사고 위험을 폭넓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데이터가 제공된다"며 "금고의 경각심을 높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은 무단 이체, 카드 위변조,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금융사의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손해 배상 책임을 나누는 제도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반도체 중심 성장… 韓경제 '단일엔진' 위험

한은 "IT 사이클 따라 경기 출렁
내년 반도체 제외 땀 성장 1.4%"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8%로 제시했지만, 그중 상당 부분이 반도체·IT 경기 회복에 기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를 떼어내면 성장률은 1.4% 수준으로, '단일엔진 성장' 구조가 중앙은행의 경제전망에서도 드러난 셈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1.0%, 1.8%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0.9%, 1.6%)보다 각각 0.1%포인트(p), 0.2%p 상향한 수치다. 2027년 성장률도 1.9%로 내다봤다. 인공지능(AI) 투자 붐에 힘입은 반도체 경기 호조와 재정 확대, 방한 관광객 증가 등이 성장상향의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 성장률 1.8%는 IT와 반도체 사이클에 크게 의존한 수치"라며 "이 부문을 제외해 내부적으로 계산해보면 성장률은 약 1.4%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2023년 실질 성장률 1.4%, 올해 전망치 1.0%에 이어 내년에도 비(非)IT 부문

만 놓고 보면 1%대 초반에 머물 수 있다는 뜻이다. 잠재성장률(1%대 후반 안팎)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고착'에 대한 경고에 가깝다.

한은이 이번 전망에서 제시한 반도체 시나리오 분석은 이런 우려를 더 선명하게 만든다. AI 확산으로 고성능·범용 반도체 수요가 이어지고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가 보류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우리 반도체 수출물량 증가율이 올해 10%대 중반에 근접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 경우 2026년과 2027년 성장률은 기본전망(1.8%, 1.9%)보다 각각 0.2%p 0.3%p 높아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두 해 모두 0.1%p씩 더 올라간다.

반대로 AI 투자가 과열로 평가받으면서 반도체 수출이 내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고 2027년에는 물량 증가율이 0% 수준까지 떨어지는 '비관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됐다. 이 경우 2026년과 2027년 성장률은 기본전망보다 각각 0.1%p, 0.3%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물가는 2027년에 0.1%p 낮아진다. 성장률과 물가 모두가 반도체 경기의 낙관·비관 경로에 따라 동시에 출렁이는 구조를 보여

준 셈이다.

반도체와 교역조건 개선 덕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1150억달러, 내년 13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민간소비·비IT 설비투자·건설투자가 만들어내는 내수의 '자기 힘'은 여전히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이런 '반도체 의존형 회복'이 통화정책의 선택지도 동시에 좁힌다는 점이다.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더 좋아지면 성장률과 경상수지는 개선되지만, 고환율·고물가 압력이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오히려 줄어들어간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성장률과 증시·고용에 충격이 번지는데, 이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이 겹쳐 과감한 인화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 성장률이 1.8%로 올라간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사실 그제 IT나 반도체 사이클에 의해 주도되는 면이 많다"며 "이 부문을 제외하고 보면 비(非)IT 성장률은 내부적으로 약 1.4% 수준으로 잠재성장률을 밑돌아, 실질경제 상승률에도 반도체 중심의 착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하나 DNA가 미래 100년 이을 원동력"

하나금융그룹 출범 20주년 행사
함영주 "금융 본질은 모두의 행복"

"하나의 DNA'를 바탕으로 금융을 넘어 세상의 가치를 더해 나가겠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그룹 출범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 간 금융그룹 속에 내재해 된 '하나의 DNA'가 그룹의 미래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함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처음에 2개 지점, 347명의 직원, 22번째 후발은행으로 시작했지만, 하나의 DNA로 IMF, 리먼 사태 등 숏한 금융위기를 헤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어느 금융그룹 보다는 건강하게 성장했다"며 "지금의 하나로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선배들과 지금도 국내외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하나인(임직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년 간 금융그룹 속에 내재화 된 하나의 DNA는 그룹의 미래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이러한 하나의 DNA를 바탕으로 금융을 넘어 세상의 가치를 더해 나가겠다"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

했다.

이번 행사는 그룹의 17만 5200시간(20년)의 이야기를 돌아보고 ▲함께 만든 하나의 DNA 공유 ▲그룹 20주년을 함께 만들어준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 ▲경영진과의 대담 ▲그룹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사사(社史) 소개와 기념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격의 없이 진솔한 대화로 진행된 '경영진과의 대담'에서 함 회장은 "금융의 본질은 모두의 행복"이라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인 손님, 주주, 사회 공동체의 성장과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앞장 설 것"을 당부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올 막바지 밀어내기… 전국 4만가구 공급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

DL그룹 사장단 인사 단행
대림 대표이사에 정인 선임

DL그룹은 2026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극복이라는 과제 달성을 위해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리더십을 강화하는 차원의 인사다.

이번 인사를 통해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박 부회장은 2016년 고려개발 대표, 2017년



박상신 DL이앤씨 부회장 정인 대림 대표이사

대림산업(현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장, 2018년 대림산업 대표를 거쳐 지난

해 DL이앤씨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박 부회장은 최근 건설업 불황 속에서도 탁월한 경영 관리 능력을 발휘하며 실적 정상화, 신사업 발굴 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를 이어나가며 건설업 최고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인 DL이앤씨 준법경영실장은 ㈜대림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정은 DL이앤씨 최고디자인책임자(CDO)는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를 겸임한다. 황규선 DL이앤씨 기획관리실장은 ㈜대림 최고운영책임자(COO)로 발탁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분양시장이 올해 막바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대내외적 상황으로 많은 물량이 내년으로 밀리면서 연말 분양시장은 다소 평이하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1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은 총 58곳, 3만9855가구(임대포함, 오피스텔 제외)다. 이 중 2만5887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예정이다.

권역별로 일반분양은 수도권 1만7756가구(69%), 지방 8131가구(31%)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1만2236가구(47%), 인천 5353가구(21%), 울산 2628

가구(10%), 충남 1929가구(7%), 세종 1071가구(5%) 등의 순이다.

서울에서는 ▲역삼센트럴자이 ▲아크로 드 서초 ▲해링턴 플레이스 서초 등이 분양 예정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적지만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만한 입지다. 경기에서는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에미지 ▲수지자이 에디슨 ▲더샵 분당센트로 등이, 인천에서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호반써밋 인천검단 III 등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